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새로운 역할: 사회와의 융합

오대영

가천대학교 교수 / 본지 편집위원장

대학은 전통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의 설치 목적에 대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은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상아탑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의 존경과 보호를 받으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지내왔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대학 환경은 대학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 변화는 달라진 인구분포, 인터넷 등 기술 발달, 국제화, 신자유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 수는 2013년 63만 1천 명에서 2018년에는 54만 9천 명, 2023년에는 39만 7천 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평균수명은 계속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2015 세계보건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2세로, 1990년과 비교하면 10살이 늘었다. 남성은 평균 80세, 여성은 87세였다. 그 결과 대학은 학생 모집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평생교육이 날로 중요해지는 등 대학의 학생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미래에는 대학의 학생 구성원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현재는 학생 분포에서 고교를 바로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10대 입학생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3분의 1은 주부 등 중년층과 고령층, 3분의 1은 야간 수업을 받는 직장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 교육부도 2015년 5월 이모작·삼모작 시대를 맞아 고졸취업자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대학들은 2017학년도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해서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비학위 과정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기별이 아닌 학점당 등록금을 내는 등 대학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진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도 대학의 전통적인 교육 형태를 바꾸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무크(K-MOOC)를 구축해서 20여개 시범강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대 등 10개 참여 대학을 선정했다.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인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의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교류하는 교육 서비스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2001년부터 무크를 시작해서, 현재는 약 2,100개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유다시티(Udacity),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와 영국의 퓨처러(Futurelearn) 등의 무크 사이트는 세계 대학들의 우수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수강생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른다. 세계의 많은 수강자들은 무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등 세계 유명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부 무크는 수

료증이나 분야별 인증서까지 발급하고, 수강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는 등 대학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 무크로 인해 오프라인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로 무크가 가져온 변화와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금은 언어 장벽이 문제이지만, 인터넷 번역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외국의 무크에서 제공되는 강의 자료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제공되는 날도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대학들이 받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 확실하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학의 실제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대학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주창한 이후 세계의 많은 정부, 기업들이 수용한 신자유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들을 시장 논리에서 바라보며, 상품화하려 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지식 경제이며,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는 지식 자본주의라고 강조한다. 지식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것을 고객이 원하는 상업용 재화와 서비스로 만들고, 그것들을 유통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다고 본다. 지식 자본주의의 특징은 물질적 재화 생산이 비물질적 서비스 생산으로 변화하고, 생산이 더욱 지식 집약적이 되며, 기업과 국민 경제의 성공은 물리적인 공장이나 설비가 아니라 노동인구의 기술, 지식, 상상력 등의 인적자본에 더욱 의존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 역시 대표적인 지식 자본주의이다. 지식 자본주의에서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는 대학에 대해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한다. 많은 국가에서 각종 대학평가와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US 뉴스 & 월드 리포트(US News World & Report)가 1983년 처음 시작한 미국대학 평가는 고등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는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의 언론과 관련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대학들은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해 서열 중심적이고,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지만, 대학평가는 학교 이미지, 지원자 수, 졸업생 평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평가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는 아랍 국가의 대학들을 위한 대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국의 Times Higher Education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국가들을 위한 대학평가를 할 방침이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도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교육부는 이미 언론사의 평가 방식과 유사하게 대학을 평가해서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구조조정에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의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전보다 대학의 질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와 같이 평가기구의 질을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대처 정부가 대학정책에서 효율성과 시장경쟁을 핵심 이념으로 제시했다. 1997년 집권한 신 노동당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학습사회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사회, 경제적 책무성을 강조했다

며 토니 블레어 총리는 ‘교육이 최선의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2007년 고든 브라운 정부는 교육과학부를 혁신대학기술부로 바꾸고, 영국 정부의 대학정책 기본 이념을 혁신과 혁신 국가 설립으로 규정했다. 혁신대학기술부는 주요 정책에서 학습자, 기업가, 고용주가 모두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최고 수준의 대학과 공공 실험실에만 과학연구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경쟁적 요소들을 대거 반영했다.

일본도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구조개혁 정책을 도입했다. 2004년 10개 국립대학들을 통합하고 89개 전국 국립대학들을 동시에 법인화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대학도 허가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했으며, 대학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학 인증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공건(共建), 조정(調整), 합작(合作), 합병(合併)의 형태로 고등교육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0년~2001년에 749개의 대학이 307개로 합병했는데, 이를 통해서 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제 간 융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일류대학과 학과를 육성할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수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이 중국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이다. 중점 대학과 중점 학과 육성을 통한 우수 대학 육성 사업인 ‘211 공정’, 세계 일류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985 공정’을 들 수 있다.

세계화 현상도 고등교육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대학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고등교육

이 국경을 초월하여 공급되는 주요한 서비스 교육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고등교육 시장이 형성되면서 고등교육이 주요한 지식산업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의 인천 송도에 조성된 국제 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 등 외국 대학이 들어서는 등 선진국의 유명 대학들은 외국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미국 예일대학이 2013년 합작으로 싱가포르에 자유 교양대학인 Yale-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대학을 개교했듯이, 유명 대학들간의 공생 전략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고인이 된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지식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125억 달러를 기부해 2008년 개교한 킹압둘라 과학기술대학(KAUST)에는 하버드 대학 등 미국의 유명대학들이 수많은 용역비를 받고 교육과정 개설, 연구진 구성 등을 수행했다.

고등교육이 중요한 지식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대학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구조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2007년 지명도가 높고 규모가 큰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9년에 대학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대학의 거버넌스 등에서 대대적인 시장중심적인 변혁이 이뤄지고, 대학 통폐합도 단행되었다. 국립대는 모두 독립법인체로 전환되었으며, 헬싱키 공대, 헬싱키 경영대학, 헬싱키 예술디자인대학 등 세계의 국립대가 통합되어서 알토 대학과 탐페레 공대가 되었다. 두 대학은 핀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재단이 소유와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립대학으로 탄생했다.

기업도 고등교육의 많은 변화를 몰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사내 대학은 물론 나아가 기업이 기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에도 진출하는 것이다. 대학 졸업증 대신 기업에서 교육받고 특정 기술 인증서를 받는 것이 더 취업에 유리한 세상이 되면 대학은 더욱 설 땅이 좁아질 것이다.

이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은 대학에 대해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존립 목적 외에 새로운 과제와 이념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와의 융합'인 것 같다. 학문적 융합으로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이 유기적으로 사회와 연계된 '열린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와의 융합은 우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서 지역의 공통부분을 확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역사회 공헌은 교육기부 차원을 넘어선 아웃리치(Outreach) 교육철학이다. 아웃리치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대중을 위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아이디어나 실천방안을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등 교육을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992년에 대학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재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초 5년 시한의 시범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성과가 좋아서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폐쇄적이며, 중립적인 존재였던 대학이 21세기 들어 지역의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토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감소로, 서로 창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서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대학과 지역사회가 인식한 것이다. 일본 총리실도 2005년 12월 '대학과 지역의 연계에 의한 도시재생의 추진'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대학이 지방공공단체나 주민, 비영리단체(NPO) 등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도시 회생을 앞당기자는 취지였다. 그 결과 대학이 지역 교육·연구의 중심, 싱크탱크가 되어서 도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대학들도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고등교육은 지역경제의 쇠퇴를 막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과 혁신을 제공하므로 인구성장전략에도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와의 융합은 대학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을 찾아가고, 지역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대학은 사회와의 융합 차원에서 산업적 마인드를 높여야 한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미 1998년 '교육이 최선의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교육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고, 교육과 경제 영역은 더욱 중첩되고 있다. TLO(대학기술이전조직)는 이제 많은 국가의 대학에서 일반화되었지만, 대학은 더욱 소중한 자산인 연구물들을 산업화해서 자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기업과 더욱 손을 잡고, 기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교육과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2004년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하면서 일본의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이사회에 참여시켰고, 핀란드에서 국립대 통합으로 탄생한 알토 대학의 이사회에 세계적인 대기기업인 노키아와 코네카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장점을 활용해서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취업난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 현장실습, 학생 창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대학은 기업과 융합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유연한 사고로 개방성, 수용성을 갖고 사회와 융합하는 대학만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14.1.29).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15.5.26). 고졸취업자에 대한교육 기회 활짝 연다.
- 교육부 보도자료(2015. 4.16). '1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참여대학 서울대 등 총 10개교 선정.
- 김이경 외(2014).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발굴. 교육부.
- 김지은(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3호, 69-86.
- 김철영(2013).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4권 제5호, 65-78.
- 민경찬(2013). 창조경제와 학문의 융복합-정부와 대학, 상호 혁신기회로 삼아야. 대학교육, 7월호.
- 서경호(2014). 싱가포르국립대학의 실험: Yale-NUS College. 대학교육, 1월호.
- 유현숙(2005). 교육강국을 향한 중국의 개혁 드라이브. 교육개발, 32권 3호, 26-32.
- 유현숙 외(2009).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2014). 사회변화 메가트렌드와 대학교육. 대학교육, 183호.
- 정진희(2012). 신자유주의와 핀란드 고등교육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2호, 106~135.
- Callinicos, A.(2010).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차승일 역. 마르크스21, 187~240.
- Chang, G. C., & Osborn, J. R.(2005). Spectacular colleges and spectacular rankings. Journal of Consumer Culture, 5(3), 338-364.
- Espeland, W., & Sauder, M.(2009). Rating the rankings. Contexts, 8(2), 16~21.
- Martin, J. P. (2015) Moving up in the U.S. News and World Report Rankings.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47(2), 52~61.
- 한국경제신문(2015.5.14). 한국 기대수명 82세·25년 새 10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1423761>

필자소개

오대영 가천대학교 교수 / 본지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아주대 경영대학원(석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중앙일보 일본특파원, 논설위원, 국제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4년간 담당하였다. 현재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지하경제』(공저), 『닛폰리포트』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한국과 일본신문의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뉴스 프레임차이 비교”, “교육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탐색”(공동), “중동 6개국언론보도에 나타난 중동 한류”, “이스라엘 유대인의 창의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청소년들의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중독, 효과에 관한 연구”(공동)와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저널리즘, 국제커뮤니케이션, 교육커뮤니케이션, 대학교육 등이다.